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2017년 자율관리공동체 컨설팅 본격 추진

5월 중순 현재 전국 200여개 공동체 컨설팅 실시



지난 4월부터 자율관리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4월 15일 삼천포외줄낙시공동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태인 컨설턴트가 교육하는 모습.

금년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업회는 지난 4월 9일 자율관리어업 지역담당 컨설턴트 15명을 새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5월 중순 현재 전국 200여개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한국수산업회 컨설턴트는 2017년도 등급평가에서 평가점수 500점 미만 공동체에 대해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

고 있다. 컨설턴트는 공동체 방문을 통해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과 참여 방법은 물론, 활동일지 작성요령 등을 알려주는 등 공동체의 평가점수 향상 및 마을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전국의 지역담당 컨설턴트는 올해 800여 공동체를 2~3회 방문해 컨설팅 할 계획이지만, 거리가 먼 도서지역은 1회로 제한될 수 있다.

일본에서 제1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



금년도 제1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가 일본 큐슈지역을 중심으로 5월 14일부터 18일 까지 4박5일간 진행됐다.

외국의 수산자원관리 선진사례를 견학하는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가 5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간 일본 큐슈지역의 수산자원 조성관리 등 수산업 현장을 시찰하는 연수기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2면>

이번 1차 일본연수에 이어 오는 7월에는 수산업 선진국인 뉴질랜드, 9월에는 중국 산둥성에서 연수를 가질 예정이다. 연수 참여 어업인은 1차와 2차는 우수공동체 어업인, 3차는 신규공동체 어업인 각 1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급 평가 추진

해양수산부는 2017년에 활동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등급 결정을 위한 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 이미 지자체 등의 예비평가를 마치고, 조만간 시도 지역협의회 평가가 마무리되면 6월부터 해수부 주관의 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평가는 시도 지역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전자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공동체 현지 점검을 통해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평가점수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공동체 현지 점검은 육성사업비 지원대상 모범등급 중 해수부에서 선정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오는 6~7월경 지자체 공무원, 지역담당 컨설턴트 등 2~3명이 한 조를 편성해 실시한다. 한편 해수부는 자율관리어업 관련 우수공동체 선발 및 지원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규정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고창 하전 자율관리공동체, 바지락 판매장 준공 선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 하전 바지락 축제도 개최



하전 자율관리공동체는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을 받아 바지락 판매장을 건립, 5월 19일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하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 권영주)가 5월 19일 바지락 판매장을 마련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로 마련한 연면적 359㎡ 규모의 바지락 판매장은 2층으로 조성돼 1층은 바지락 처리장 및 판매장, 2층은 교육장 및 회의실로 활용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7억1,400만원이 소요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수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길수 고창군수 권한대행 등 내빈을 비롯, 관내 어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고창 하전공동체는 5월 19~20일 2일간 하전갯벌체험장 일원에서 '고창 하전바지락축제'를 개최해 일반인들에게 바지락의 참맛을 만끽할 수 있게 했다.

산치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업회 가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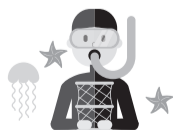
자율관리어업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어장관리 활동



어장정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뒤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자원조성 활동



채포제한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 능력 식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

부산 서낙동강공동체, 울산 주전공동체에서 충북 관내 3개 내수면공동체, 예당공동체에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성공 사례전수 현장교육이 5월 9일 울산 주전공동체에서 열렸다. 이날 부산 서낙동강공동체 회원 29명은 주전공동체를 방문, 강원보 위원장으로부터 주전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 활동 및 성공 사례를 전수받았다. 또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 양문주 부장과 김종규 컨설턴트로부터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및 활성화 교육을 받았다.



부산 서낙동강공동체는 5월 9일 울산 주전공동체를 방문, 성공사례 현장교육을 받았다(사진 왼쪽). 이어 5월 15일에는 충북관내 3개 공동체 회원들이 내수면의 대표적인 선진공동체인 예당공동체를 방문해 성공사례 현장교육을 받았다.

이어 5월 15일에는 충북지역의 영동내수면, 금강유원지, 옥천금강 등 3개 공동체 회원 23명은 충남 예산군 예당내수면공동체를 방문,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을 받았다.

한편, 5월 2일에는 경남 하일연안통발, 하이연안통발, 미룡(경남 고성) 등 3개 공동체 26명이 거제 새우조망공동체에서 효율적인 어장관리 등 현장교육을 받았다.



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 주관

관내 36개 공동체 180여 회원 참여 울포마을 해안변 등바다정화 활동



통영관내 36개 자율관리공동체 18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바다정화 활동 모습.

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회장 이기만)는 4월 30일 관내 해안변에 대한 대대적인 바다정화 활동을 펼쳤다.

통영시연합회 소속 36개 공동체 180여명이 참여한 이번 청소작업에는 자망공동체 선박 등을 동원해 통영시 용남면 울포마을 해안변과 신거제대 교밀 해안변, 내포마을 일원에서 페스



티로폼 20여 망과 기타 쓰레기 170여 자루를 수거해 통영시청을 통해 처리했다.

이번 청소작업에는 공동체 당 4명씩 참여키로 했으나, 일부 공동체는 8~10명이 참여해 수산자원조성 못지 않은 바다환경 개선작업에 대한 참여 열기를 보였다.

경남연안선망 자율관리공동체 통영 동호만·정량만 일대 해안청소



경남연안선망 자율관리공동체는 5월 15일 관내 해역에 대한 해안청소작업을 펼쳤다.

경남연안선망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이기상)는 5월 15일 통영관내 동호만, 정량만 등 해역에 대한 대대적인 해안청소작업을 벌였다. 경남연안선망공동체는 이날 어

선 2척과 트럭 3대를 동원하여 페스티로폼을 비롯한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여 통영수협 동호 위판장에 집결한 후 망과 자루에 담아 통영시청에 의뢰해 처리했다.

남해·하동지역 어촌지도자협의회 관내 자율관리연합회장 등 120여명 참여



경남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는 4월 26일 남해유배문학관에서 남해군 및 하동군 어촌계장 등 124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회 어촌지도자협의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남해군수 권한대행의 수산정책방향과 현장경험사례 특강에 이어 한국수산회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및 전자상거래 컨설팅사업, 남해사무소의 2018년 해양수산부의 달라지는 정부제도 및 주요 업무계획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울산지역 어촌지도자 대상, 자율관리어업 교육 실시

울산광역시시는 5월 9일 시청 회의실에서 강원보 자율관리어업 울산시연합회장을 비롯 30여명의 어촌지도자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정책교육을 실시했다. 울산시 해양

수산과장 등 수산담당 공무원을 비롯, 한국수산회 및 울산지역 담당 컨설턴트가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및 금년도 사업추진 내용이 발표됐다.

통영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3년 연장

경남도는 4월 23일 통영시 산양읍 일원의 '통영 바다목장 해역'(2,000 ha)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유효기간을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경남도는 해당 해역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수자원보호를 위해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으로 해당 해역에서는 기존의 면허어업, 해조류 양식어장 개발, 구획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등 일부 행위만 허용된다.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및 통발어업 행위와 오염유발 행위,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수산자원조성시설 및 바다

목장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전국 최초의 바다목장인 통영 바다목장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해역으로 사업추진 중이던 2005년에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최초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광역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만리 해안선 바닷가 대청소'

수협-환경재단-제주올레, 바닷가 청소 MOU 체결



5월 16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개최된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환경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MOU)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다쓰레기로 인해 심각한 해양 생태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수협중앙회는 재단법인 환경재단,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환경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5월 16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과 최열 재단법인 환경재단 이사장,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및 제주 관내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수협중앙회와 각 단체는 제주 올레 해안길 청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후 전국 52개 해안누리길을 넘어 전국 4만리 해안선 전역으로 영역을 넓혀나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운동을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기고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현장에 답이 있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원을 조성 관리토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어촌사회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수산관련 공직 및 어업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자율관리어업의 성과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비록 지금도 불법어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었고, 또한 불법을 하더라도 눈치를 보며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자율관리어업 덕택이라 여긴다.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원회복에 따라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동생산 및 판매 등을 통해 어가소득 증가도 가시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그동안 어업현장에서 느낀 공동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공동체 회원의 질적 참여가 미흡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는 데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공동체 회원들의 고령화와 부녀화 특히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거나 공동체 활동 평가자료 제출을 소홀히 한 공동체일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다. 이것은 위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함께 정부지원에만 관심이 있는 공동체가 아직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식교육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유형별 성공 공동체의 실상을 직접보고 느껴야 한다고



권승배
자율관리어업 컨설턴트
(고흥·장흥 담당)

본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필자는 이 뜻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로 읽혔으면 한다.

모범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성공한 공동체에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 여건이 비슷한 성공한 공동체를 찾아 맞춤형 현장견학을 통해 노하우를 배우고, 회원들에게 동기유발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공동체 실태를 보면 참여의식이 부족해 공동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지만, 열심히 활동은 하지만 활동일지 작성 등 행정처리가 되지 않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공동체도 적지 않다.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도와 시·군에서는 자율관리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수시로 현장을 방문,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기록, 홍보, 회계업무 등을 맡게 하여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여러 기관·단체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무엇보다 공동체 현장에서 어업인과 부딪히며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자율관리어업 컨설턴트들의 활동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자율관리어업이 성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손익계산서상의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비록 지금은 소득이 적더라도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합심하여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 제1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 - 일본

일본의 새우양식장 및 해상공원, 낚시체험시설 등 견학

금년도 제1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가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후쿠오카, 나가사키, 사가현)에서 진행됐다. 연수단은 공동체 어업인 12명을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수단은 일본 큐슈의 관문이자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후쿠오카를 비롯, 나가사키, 사가현 등의 수산연구시설과 보리새우 양식장, 해상낚시공원 등을 둘러보고 우리 어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단은 먼저 후쿠오카현 수산해양기술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센터는 해면 및 내수면어류를 비롯, 갑각류, 패류 등 다양한 품종의 양식기술 개발 및 어장 환경개선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종합연구센터로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년 아름다운 바다 만들기 대회도 개최해 오고 있다.

사가현에 위치한 타구수이그룹은 보리새우를 양식하는 일본 최대기업으로, 일본 전역에 7개의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리새우는 매년 4월에 채란하여, 약 1개월간 종묘 수조에서 양성시킨



나가사키현 쿠주쿠시마 해상공원을 방문한 연수단의 단체사진 모습.



쿠주쿠시마 해상공원에서의 질의응답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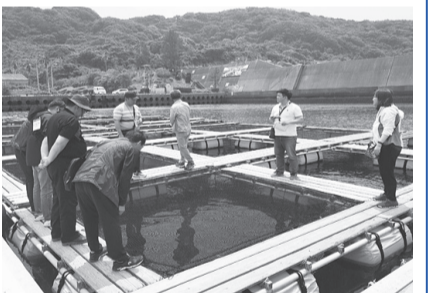


후쿠오카현 수산기술센터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후 15mm 크기로 성장하면 노지 양생지로 옮긴다. 7월경 체중 20g으로 성장하면 이듬해 2월까지 선별하여 출하시키는데 타구수이그룹은 1년에 200톤 이상의 보리새우를 생산한다. 양식, 가공, 유통·판매를 함께 추진하는 이곳에서는 급속냉동 기술을 개발하여 영하 20도에서 급랭한 보리새우를 고

급 레스토랑에 공급하고 있다. 일체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미생물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양식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어서 방문한 곳은 나가사키현의 쿠주쿠시마 해상공원. 쿠주쿠시마는 사세보항에서 히라도세토에 이르는 25km 해상에 펼쳐진 1200여개의 섬들



나가사키 종합수산센터내 시험장 방문 모습.

로 이뤄져 있다. 매년 3억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해상국립공원으로, 유람선과 바다카약,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나가사키의 대표적인 해상공원이다. 이곳에서는 고정된 그물을 이용한 어업과 양식업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후쿠오카현 무나카다 오오시마 해양체험시설은 최대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낚시 전용 방파제를 갖춘 해양체험시설이다. 길이 300m, 폭 12m의 방파제는 중앙 통로부분의 양쪽에 낚시공간을 마련, 사계절 다양한 어종의 낚시가 가능한 곳이다.

낚시체험 비용은 대인 5,100엔, 소인 3,100엔이며, 낚시장비 렌탈과 잡은 물고기 손질 등으로 부수입을 얻고 있다. 시설비용을 부담한 지자체에서는 오오시마까지 오가는 페리 여객선 운항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다.

‘바다숲 가꿔 우리 바다 되살리자’ 제6회 바다식목일, 충남 태안에서 개최



제6회 바다식목일 행사가 5월 10일 충남 태안에서 열려 풍요로운 바다 만들기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제6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가 5월 10일 충남 태안군 의항리 바닷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연안 해역에서 식하며 바다생물의 서식지이자 산란지 역할을 하는 잘피를 심어 연안 생태계를 살리는 잘피심기 행사와 유공자 포상이 실시됐다.

이와함께 전국 10개 지역에서는 바

다식목일 주간에 맞춰 기념식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한편 해수부는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2009년부터 바다숲 조성사업을 실시해 2017년까지 전국 연안에 1만 5252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3108ha의 바다숲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 수산인 2,500명 하동에서 뭉쳤다’ 경남 수산인 한마음대회 개최



경남도내 18개 시·군 수산인 2,500여명이 경남 하동에서 한마음대회를 갖고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경남도내 18개 시·군 수산인 2,500여명이 경남 하동에서 해양사고 예방 결의를 다지고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4월 21일 하동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경남수산인 한마음대회는 경남수협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한마음대회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임권 수협중앙

회장 등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하고, 수산인들을 격려했다.

한마음대회는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전이언 하동수협장의 개회선언, 유공자 표창, 김창영 경남수협장협의회 회장 대회사,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축사, 해양사고 예방 결의문 낭독에 이어 체육 및 화합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서해어업관리단, 신청사 개청식 ... 어업지도선 취항식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이 전남 목포 북항 배후부지에 신청사를 마련하고 5월 16일 개청식을 가졌다. 신청사는 대지면적 3만1,831㎡에 건축면적 5,073㎡ 지

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65억원이 들었다.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등 3과에 210명이 근무한다. 개청식과 함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호와 15호 취항식도 열렸다.

쏘가리 완전양식 기술개발·대량양식 성공



한국쏘가리연구소가 4월 8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재 연구소 내에서 손재학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 각계 인사와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쏘가리 시식회를 가지고 있다.

민물 최고급 어종으로 손꼽히는 쏘가리를 단기간에 상품성 있는 크기로 키우는 양식 기술이 개발돼 본격 산업화 가능성이 열렸다.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한국쏘가

리연구소(소장 김진규)는 쏘가리 습성과 생태를 감안해 자체 개발한 인공사료를 이용, 단기간에 상품성 있는 쏘가리로 다량 양식하는데 성공해 4월 8일 쏘가리 회 시식회를 가졌다.

공동체 탐방 / 통영연안자망 자율관리공동체

경남지역 연안자망업계의 구심점 ... “어선어업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절실”



한태열 통영연안자망공동체 위원장.



자망어업 과정에서 해적생물을 구제하는 모습.



통영연안자망공동체 회원의 연안 정화활동 모습.

통영연안자망 자율관리공동체의 어업활동 근거지인 통영해역은 남해안 수산1번지라는 별칭에 걸맞게 넙치, 도다리, 멸치 등 각종 어류의 주요 서식지이다. 하지만 3중자망을 사용한 치어포획과 남획으로 자원이 감소하자 2005년 통영과 거제 일부의 자망어업인 15명이 뜻을 모아 자율관리공동체를 결성하고, 더 이상 자원이 남획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들 어업인들은 어구의 망목 크기를 80mm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물길이도 8,000m 이하만 사용키로 하는 등 자원관리 위한 자체규약을 설정하는 한편 주요 체포어종인 문

치가자미(도다리)의 산란시기에 금어를 설정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자원관리에 나섰다.

특히 자원고갈의 주범인 3중자망을 근절하기 위해 대체어구인 지지줄 자망 허용을 건의해 포획강도를 크게 낮추고,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에 적극 참여하여 수산업계에 주목을 받았다. 이같은 활동에 공감한 어업인들의 참여로 현재 회원수는 60명으로 늘었으며, 특히 2008년 통영연안자망공동체 주도로 거제, 진해, 삼천포 등지의 7개 자망단체가 참여하는 경남연안자망공동체연합회를 결성, 3중자망을 근

절시키고 자망 어업인들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한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어선어업이 살아야 수산업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관리어업 추진에 있어 어선어업의 활동영역은 제한돼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하는데 관계당국에서 지혜를 모아주었으면 합니다.”

통영연안자망공동체 및 경남연안자망공동체연합회의 결성을 주도하고, 관내 자망업계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한태열 위원장은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폐어구 수거 및 해적생물 구제 사업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공동체에서는 조업중에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간 해양쓰레기 1만kg 이상, 불가사리, 해파리 등 해적생물 5,000~6,000kg을 수거해 오지만 수협을 통한 구매자금은 3~4개월 정도면 바닥을 보이고 있어 난감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오랜기간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 선진공동체에 진입했지만, “어선어업 공동체의 경우 인센티브 개념의 육성사업비 및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신청 및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어선어업 공동체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기준마련이 절실하다”고 한 위원장은 밝혔다.